



문의 : 2006서울WLIC
조직위원회 사무처
전화 : 02-535-7085
팩스 : 02-535-7084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 소식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방문도서관 대표자회의 개최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방문도서관 대표자회의가 2006년 2월 7일(화)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소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06서울 WLIC의 공식 방문도서관으로 선정된 37개 도서관 대표자에게 “도서관방문프로그램”에 관한 IFLA본부 및 조직위원회의 입

장·기대수준 및 지원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각 도서관의 구상과 의견을 검토·협의함으로써 도서관방문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방문도서관 대표자 및 담당자 52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직위원회 한상완 집행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37개 방문도서관 대표자의 자관 소개, 남영준 행사분과 위원장의 회의 취지 설명과 정재영 행사분과위원의 방문도서관 경험사례 발표가 있었다. 또한 조직위원회의 지원 및 요망 사항에 대한 건의와 도서관방문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져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도서관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조직위원회는 2006서울WLIC(8월 20일(일)~24일(목), COEX)에서 함께 일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진행(20명), IFLA Express팀(15명), 행사(65명), 안내(60명), 문화행사(40명) 등 5개 분야이며, 어학능력, 성실성, 활동성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기본교육을 받고 2006서울WLIC 기간 중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대회 참가등록금을 면제해주고, 각 회의나 문화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현재 문헌정보학과 관련 전공자 및 다른 국제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ifla2006seoul.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우편으로(volunteer@ifla2006seoul.org) 보내면 된다.

봉사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조직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위원장:이상복, 대전대 교수) 회의가 2006년 1월 20일(금) 오전 10시 조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06서울WLIC의 운영지원 요원으로 활동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과 연락망 등 전반적인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조직위원회 자료분과위원회(위원장:윤희운, 대구대 교수) 회의가 2006년 2월 10일(금) 오후 2시 조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06서울WLIC 참가자들에게 배포될 『한국의 도서관(Libraries in Korea, 영문과 국문 2종)』 책자 발간과 <IFLA Journal> 2006년 6월호에 게재할 한국의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한 원고 작성 계획을 논의하였다.

*** 협회소식 ***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우리 협회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까지 임기의 새로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새 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였다.

(※ 위원명단은 가,나,다 순임)

- 기획위원회
 - 윤희윤(대구대 교수, 위원장)
 - 문영철(연세대중앙도서관 부장)
 - 성정희(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 장덕현(부산대 교수)
 - 조순영(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장)
 - 조영추(광주시립무등도서관장)
 - 최희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실장)
- 공공도서관위원회
 - 이치주(국립중앙도서관 부장, 위원장)
 - 신경숙(청주시립도서관 계장)
 - 이 상(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과장)
 - 이용재(부산대 교수)
 - 정문택(안양시립석수도서관장)
 - 조정화(성북정보도서관 팀장)
- 대학도서관위원회
 - 김종은(서울대도서관 농학분관 서기관, 위원장)
 - 김상태(충남대도서관 사서사무관)
 - 김종찬(동남보건대도서관 과장)
 - 김효원(고려대중앙도서관 과장)
 - 유광호(중앙대중앙도서관 과장)
- 학교도서관위원회
 - 이성애(송곡정보산업고등학교 사서교사, 위원장)
 - 김주상(왜관중학교 사서교사)
 - 예주영(숙명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 이승길(경신고등학교 사서교사)

- 이은경(대전고등학교 사서교사)
- 최은주(강문중학교 사서교사)

- 전문도서관위원회
 - 최호남(KISTI NDSL 사업단장, 위원장)
 - 강덕선(충신대도서관 과장)
 - 김해양(연세대의학도서관 과장)
 - 박금순(국회도서관 과장)
 - 백중석(법원도서관 과장)
 - 이지호(한국원자력연구소 사서)
 - 정분희(통일부 북한자료센터장)
- 특수도서관위원회
 - 육근해(한국점자도서관장, 위원장)
 - 김인선(부산점자도서관장)
 - 이영숙(국립중앙도서관 사서)
 - 황숙경(화도진도서관 사서)
 - ※ 병영도서관 부분을 추후 위촉 예정임.
- 분류위원회
 - 남태우(중앙대 교수, 위원장)
 - 김남숙(성균관대중앙학술정보관 사서)
 - 김선희(중계평생학습관 사서)
 - 박춘자(국회도서관 사서)
 - 오동근(계명대 교수)
 - 이상임(국립중앙도서관 사서사무관)
- 목록위원회
 - 김태수(연세대 교수, 위원장)
 - 기민도(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 김은수(연세대중앙도서관 사서)
 - 김이경(광주대 교수)
 - 김정현(전남대 교수)
 - 이미정(개포도서관 사서)
 - 이재선(국립중앙도서관 사서)
 - 한재구(국회도서관 사서)
- 국제교류위원회
 - 정동열(이화여대 교수, 위원장)
 - 김양우(한성대 교수)
 - 박소연(덕성여대 교수)
 - 박은봉(국립중앙도서관 사서)
 - 이안나(국회도서관 국제협력관)

장석일(서울대중앙도서관 사서사무관)
조재순(국립중앙도서관 사서)

□ 권익협력위원회

송일기(중앙대 교수, 위원장)
김지봉(과천도서관 과장)
박경련(원광대의학도서관 부관장)
신현태(국립중앙도서관 과장)
임윤철(정독도서관 과장)

□ 간행물위원회

한윤옥(경기대 교수, 위원장)
성기주(동덕여대 교수)
오경목(숙명여대 교수)
이숙현(국립중앙도서관 과장)
조현양(경기대 교수)

□ 독서진흥위원회

황금숙(대림대 교수, 위원장)
김순화(울산중부도서관 사서)
김정근(前 부산대 교수)
김중성(계명대 교수)
김현남(성남도서관장)
이권우(도서평론가)

□ 저작권위원회

※ 추후 위촉 예정임

□ 윤리위원회

홍기철(국회도서관 국장, 위원장)
곽승진(충남대 교수)
변태현(경북대도서관 과장)
신종원(효목도서관장)
윤영옥(정독도서관 과장)

□ 어린이청소년봉사위원회

박미영(노원어린이도서관장, 위원장)
박은재(서울여대 교수)
송영숙(서울독서교육연구회장)
최진봉(제천기적의도서관장)
황태숙(울산중부도서관 과장)

기획위원회, 2006년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 : 2006년 2월 10일(금) 10:30 ~ 12:30
- 장소 : 한국도서관협회 회의실
- 참석자 : 윤희운(위원장), 성정희, 장덕현, 조영추, 최희운(이상 위원), 사무총장, 기획부장, 유태형, 강원영(이상 사무국)
- 안건 : 1) 회장 선출 방식 변경 건
2) 이사회 구성 변경 건
3)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확산 대책 방안
4) 대학도서관협회(가칭) 구성 움직임에 대한 건
5) 기타 안건
- 회의내용
 - 기획위원회 위원장, 위원 소개 및 위촉장 전달
 - 안건 설명 (사무총장)
 - 안건 처리
 - (1) 회장 (및 부회장) 선출 방식 변경 건
 - 논의 후 다음 3가지 방안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함.
 - ① 현행 제도 유지 (단, 평의회 선출방식 등은 개선)
 - ② 직선제 도입 (투표방식, 후보 자격 여부 등 검토)
 - ③ 직선제와 간선제 병행하는 방안 (반영 비율 등 검토)
 - (2)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 건
 - 회원 의사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 이사회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 확인
 - 이사 수 확대 (현 11~15인 → 21~25인)
 - 산하 단체에 이사 추천권 부여
 - (3)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확산 대책 방안 건
 -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권고
 - 올해 이 문제에 대한 공공도서관 부문 논의를 활성화 시킬 것을 권고

- (4) 대학도서관협회(가칭) 구성 움직임에 대한 건
 - 한국 도서관계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 협회에서 대학도서관 입장을 반영한 운영 개선에 노력할 것을 권고

[문의 : 이용훈 기획부장, ☎ 02-535-4868]

대학도서관위원회, 2006년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 : 2006년 2월 17일(금) 10:00-12:00
- 장소 : 한국도서관협회 회의실
- 참석자 : 김종은(위원장) 김상태, 김종찬, 김효원, 유광호(이상 위원) 사무총장, 유태형(이상 사무국)
- 안건: 1) 위원장 선출
 - 2) 대학도서관 현안 사항
 - 3) 기타
- 회의내용
 - 위원소개 및 위촉장 전달
 - 안건 설명(사무총장)
 - 안건 처리
- (1) 위원장 선출
 - 국·공립 대학 도서관 측의 김종은(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 과장)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 대학도서관과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유지 필요
 - 저작권법 문제에 대한 학위논문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과 활동을 협회가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2004년 12월 20일 관계자 면담내용을 재확인함.
 - 대학도서관 현안 사항해결에 대한 협회 측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

- 협회의 대학도서관 지원 방안 강구 필요
- (3) 도서관법 개정 시 자료 폐기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역별 보존도서관 문제 해결에 노력하기로 함.
- (4) 독서문화상 수상자에 대학 및 전문대학 관계자 배려 필요

동아시아도서관조사위원회 일행 협회 사무국 방문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용훈 부장, 박경아 과장, 오쿠다 마코도 NTT 직원, 사사키 쿠니히코 계장, 이치카와 에리 계장, 이경구 사무총장, 사이토 아키히코 소장, 한상완 협회장, 이토가 마사루 교수, 김용원 교수〉

일본 문부성 관계자 일행 6명이 2006년 2월 10일(금) 오후 4시 협회를 방문, 우리나라 도서관정책, 도서관법, 도서관 정보기술(IT), 인재 육성 등에 관하여 1시간 30여분간 대화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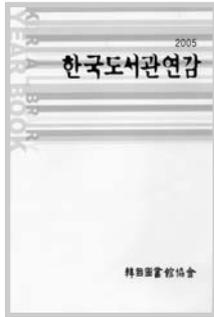
일본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은 '동아시아도서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과 인접한 동아시아지역 국가의 도서관정책과 공공도서관 현상, 과제 등을 실태 조사하여 일본 지역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공공도서관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조사위원회 일행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우리 협회를 비롯하여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여러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이번에 협회를 방문한 일본 측 조사위원은 이토가 마사루(伊賀雅兒) 게이오대학 문학부(도서관 정보학) 교수, 사이토 아키히코(齋藤明彦) 돗토리현 충무부 자치연수소장 및 전 돗토리현립도서관장, 이치카와 에리(市川惠理)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 사회교육과 도서관진흥계장, 사사키 쿠니히코(佐佐木

邦彦)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 사회교육과 법규계장, 김용원(金容媛) 쓰루가다이대학 미디어센터장 및 문화정보학부 교수, 오쿠다 마코도(奥田理) NTT 데이터경영연구소 사무국 직원 등 6명이었다.

협회 측에서는 한상완 협회장, 이경구 사무총장, 이용훈 기획부장, 박경아 과장이 참석하여 양국 도서관 정책과 공공도서관 상황 등에 대해 깊이 있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조사위원회는 우리나라 이외에 중국과 싱가포르도 방문한다고 한다.

2005 한국도서관연감 배포



우리 협회는 『2005 한국도서관연감』을 발행하고 이를 협회 1급 단체 회원에 2부씩, 그 외 전국도서관에 1부씩 배포하였다. 이번 연감에는 도서관계의 2004년도 현황과 활동내용, 주요 통계를 담았다.

제1부에는 관종별 도서관현황, 지역별 도서관현황, 도서관 관련 각종 단체 현황 및 2004년에 화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도서관 문제를, 제2부에는 도서관 통계를, 제3부에는 도서관 주소록과 1년 간의 도서관 관계 소식 및 일지, 도서관 관련 기사, 주요 학술지 목록 및 책자 목록, 관계 법령 등을 수록하였다.

상황별 독서목록(청소년·어린이편) 배포



우리 협회는 『상황별 독서목록』(청소년·어린이편) 책자를 발행하고 이를 협회 단체 회원에게 1부씩 배포하였다.

동 책자는 2005년도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한국도서관협회 독서진흥위원

회 특별연구팀(책임연구자 : 한윤옥 경기대 교수, 공동연구자 : 김정근 전 부산대 교수, 황금숙 대림대 교수, 신주영 부산대도서관 사서, 김순화 울산중부도서관 사서)에서 만든 것으로 도서관을 포함하는 각종 독서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수록된 초록 책 수는 279책이다.

* 각종 협의회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제45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회장 장공자)는 2월 9일(목)부터 10일(금) 양일간 금오공과대학교 글로벌관에서 제45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회원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근희 충남대학교도서관 사서가 “이용자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박준식 계명대학교 교수가 “한국불교문화와 석탑의 미학”에 대한 초청강연을 하였다.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장의 “과학기술 정보검색 및 활용”에 대한 특별강연도 있었다. [문의 : 김난희 ☎ 054-478-7162, 전송 : 054-478-7166]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제32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회장 천소영)는 2월 16일(목) 수원대학교 벨칸도아트센터에서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 협회 한상완 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2005 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와 임원개선, 상임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회칙 제정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문의 : 수원대학교중앙도서관 이해영, ☎ 031-220-2391, 전승 031-220-2198]

〈2006년도 임원선출〉

회장교 : 배재대학교 중앙도서관

회 장 : 이상범(배재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사무국장 : 김기세(배재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보열람과장)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2006년 워크숍 및 정기총회' 개최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회장 최호남)는 2월 9일(목)과 10일(금) 양일간에 걸쳐 경주교육문화회관 별관 3층 A홀에서 2006년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기관 및 회원간의 정보교류와 화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 우리 협회 김태승 부회장이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신용철 교수의 경주 문화유산에 대한 특강, '국의 정보관리 발표 I' (최선희 KISTI), '국의 정보관리 발표 II' (김미연 ETRI), '국내 정보관리 사례발표 I' (윤연화) '국내 정보관리 사례발표 II' (김상준)가 있었다. [문의 : 총무 이명숙, ☎ 042-868-2294, 전승 042-861-9561, stima@stima.or.kr]

* 국내소식 *

국립중앙도서관, OASIS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태근)은 최근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보존 프로젝트인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의 홈페이지(www.OASIS.go.kr)서비스를 시작했다.

OASIS는 소멸성이 강한 디지털 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보존하고 교육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검색, 디지털 자원의 기증·추천, 저작권 관련 사항을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저작권관리, About OASIS, 관련 사이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향후 온라인 디지털자원 우수 기증 기관 및 개인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OASIS 사업 관련 대국민 아이디어 제안 제도 운영, 각종 홍보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귀중고서 해제집 『선본해제 VII』 발간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한 귀중본을 소개한 『선본해제 VII』를 발간했다.

도서관은 1970년대부터 소장 고전 자료 26만여 책 중 귀중본의 목록집 편찬과 해제집 간행 작업을 해왔으며, 해제집에는 귀중도서의 상세한 목록정보와 함께 자료별로 사진과 상세한 설명도 수록되어 있다.

이번에 수록된 자료 중 조선지고전(朝鮮之古錢)은 1910년대 개성(開城) 주변에서 출토된 당송(唐宋) 시기의 주화(鑄貨)에 대한 설명과 실물 주화를 첨부한 특색있는 자료이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10권5책은 성종12년(1481) 예종(睿宗)의 계비 인혜왕대비 한씨가 양조모(養祖母)의 영가천도를 위해 7부만을 찍어낸 것 중 하나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소장 고서와 고문서에 대한 해제집 및 연구집을 계속 간행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작가와 함께 여는 책세상” 문화강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3월 9일부터 11월 3일까지 문화강좌 ‘작가와 함께 여는 책 세상’을 연다.

올해에는 “책과 함께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문학·예술·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책에 관한 이야기와 작품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월 1회 작품배경 현장을 탐방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문화강좌는 매주 목요일 10부터 12시 30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에서 열린다. [문의 및 수강 신청 : ☎ 02-590-0556, 0558, young93@nl.go.kr]

국회도서관 개관 54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배용수)은 개관 54주년을 맞아 2월 20일(월) 오후 2시 대강당에서 김원기 국회의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주요 입법정보서비스인 4개 분야(입법참고질의회답, 입법지식DB, 전자도서관이용, 단행본이용)의 국회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시상하고 이어령 중앙일보 상임고문을 초청하여 “지식정보 발신기지로 서 도서관의 새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국회도서관 1층 정보검색홀에서는 국회도서관 54년 발자취 사진 전시회도 열었다. [문의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준희, ☎ 02-788-4128, 전송 02-788-4291]

천영세 의원실, 저작권법 개정안 공개 토론회 개최

천영세 의원실은 1월 20일(금) 오후 3시부터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05년 12월 7일(수)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부분 개정안을 발의한 후 열린 자리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와 그 의미를 알리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개정 법률안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특히 김성중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장은 현재 디지털 도서관의 시행과 저작권법의 문제점으로 △디지털 도서관의 복제물 보상금 징수 목적으로 저작권법이 왜곡돼 적용되고 있는 점 △과금단말기 설치 비용이 과대한 점 △도서관의 비용부담이 막대하다는 점 △디지털 도서관 이용의 위축 및 공정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도서관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송 범위를 도서관에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상금 제도 역시 저작권자와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보상금 지급 주체는 도서관이 아닌 이용자가 돼야 한다며 비판매용 DB에 이용자의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문의 : 국회의원 천영세 의원실, ☎ 02-784-5287]

■ 프로그램

(사회자)

정경희(충북대 의학정보센터)

〈주제발표〉

-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저작권 제도의 균형
/ 남희섭(정보공유연대 ILeft 대표, 변리사)
- 디지털도서관의 현재상황과 활성화 방안
/ 김성중(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 권대우(한양대 법학과 교수,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부회장)
-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 김정희원(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블로거)
- 박익환(인하대 법학과 교수)
- 진중권(시사평론가, 작가)
-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강남구 전자도서관, 전국 어린이들에게 전자책 서비스 활발



강남구전자도서관(<http://ebook.gangnam.go.kr>)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하루평균 4000~5000명의 사용자 접속이 이루어져 전체 900만명에 달하는 방문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 개관한 강남구전자도서관은 관내 30여개 초등학교에 이어 지난해부터 120개 시·군·구와 교류 협약을 맺고 도서관을 개방하여 1566개 초등학교, 125만7918명의 학생에게 ID를 발급하고 운영중이다.

강남구는 올해 20억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보유한 1만종 24만권의 전자책을 4만종 100만권으로 확대하고 교류를 원하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와 유치원·중학교 등과의 협약도 늘려갈 방침이다. [문의: ☎ 02-323-0239]

경기도,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계획 발표



경기도(도지사 손학규)는 도심 주거 밀집지역에 교육 및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 사업으로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사업을 발표하였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 센터, 종합복지관 등 공공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중앙도서관 분관형태로 설립된다. 이들 도서관은 다른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쉽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6년에는 12개의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2008년까지 총 46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작은도서관 이외에도 지역별 특징을 고려하여 특화된 전문자료를 구비한 '테마정보실'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남양주 '실학', 수원 '성곽', 이천 '도자기', 부천 '영상' 등 9개의 테마정보실이 운영 중에 있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3월 중에 최종 대상지역 3곳을 확정하고 2009년까지 9곳을 추가·설치할 계획이다. [문의: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 031-249-4679]

울산동부도서관, 독서치료코너 운영



울산동부도서관(관장 박미영)은 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도와주기 위한 '독서치료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독서치료코너에 비치된 도서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작한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을 토대로 선정됐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해 ▲성격과 정서 ▲건강과 질병, 죽음 ▲가정·가족관계 등 6개 상황별에 따른 총 500여권의 책을 비치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서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책과 정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마음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담당자 이준열 ☎ 052-235-8258]

부천시립도서관 심곡분관, 여성 대상 '문학사랑방' 운영

부천심곡시립도서관(관장 박우철)은 주부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글쓰기 기초, 독서토론, 향토문화, 문학기행 등 다양한 테마로의 '문학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문학사랑방에서는 글쓰기란 무엇인가, 바른 언어, 자녀독서지도·토론, 수필 및 시 쓰기 실제 등 문학을 이해하는 기초과정부터 창작과정까지 운영한다.

2월부터 11월까지 월 3회 수요일 10시부터 12시

까지 운영되는 '문학사랑방'은 수강료는 무료이나 출석 70%이상에 한해 수료증을 발급한다. [문의: 담당자 김관성, ☎ 032-320-3470]

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2주년 정기총회 및 특별강좌 개최



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는 2월 9일(목) 복사골문화센터 514호에서 2주년 정기총회 및 특별강좌를 열었다. 이번 총회 1부에서는 신입 임원진 선출, 도서관친구모임 구성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2부에서는 이권우 도서평론가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대한 특별강좌 시간을 마련하여 부천시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의: 이진우, ☎ 032-320-6360 ljwlib@bcf.or.kr]

성남시, 구미도서관 신축 기공식 개최

성남시에 다섯 번째 공공도서관으로 건립되는 가칭 '구미도서관'의 기공식이 1월 25일(수) 머내공원(분당구 구미동 16번지 위치)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태승 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김현남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이한희 운영위원회 위원(경기도립성남도서관사서과장), 인근주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구미도서관은 성남시 구미동 16번지에 부지면적 1,598평, 건축면적 2,057평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에 문헌정보실, 연속간행물실, 모자



열람실, 장애인실, 전자정보실 등 첨단시설을 겸비한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문의: 성남중앙도서관 이종일 팀장, ☎ 031-729-4881]

종로도서관 · 양평군립도서관, 외부 새롭게 단장



(종로도서관)

종로도서관(관장 이숙자)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6개월 간 환경개선보수공사를 진행하여 2월 20일(월) 재 개관하였다.

건물 내·외부 전면 보수공사를 통해 산뜻한 모습으로 새로워졌으며 화장실 교체와 장애인 및 노약자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각 자료실과 서고의 환경개선과 서가의 재배치로 이용자가 자료의 대출과 열람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던 종로도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남에 따라 지역주민과 도서관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한층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문의: 종로도서관 ☎ 02-737-1703]



〈양평도서관〉

또한 양평군립도서관(관장 박창대)도 2월 1일(수) 새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양평군은 2005년에 예산 5억원을 투입하여 군립 도서관 외부를 알루미늄 시트로 마감해 현대적 감각의 은은하고 중후한 이미지로 꾸미는 등 도서관 리모델링 작업을 펼쳤다.

이번 공사는 현대적 감각의 도서관으로서의 품격에 맞는 분위기 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방음 및 방수에도 역점을 두었다.

지난해 12월 1일(목)에는 군립도서관 뒷 쪽에 어린이들만의 공간인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했으며, 내부에는 어린이를 위한 엄마 열람실, 놀이마당, 병아리 열람실, 꾸러기 열람실, 인터넷사랑방, 문화교육방, 꼬마또래 영아방 등을 마련했었다. [문의 : 양평군립도서관, ☎ 031-772-3095]

일곡도서관 일곡갤러리, ‘읽는 책, 보는 그림’ 전시회 개최

일곡도서관(관장 안미영) 일곡갤러리에서는 ‘읽는 책, 보는 그림’이라는 주제로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1월 19일(목)부터 2월 8일(수)까지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서양화, 동양화, 조각, 사진, 일러스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0여점을 도서관 내 갤러리와 갤러리 밖 도서관 공간에 비치해 이용자들이 책과 그림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도록 꾸몄다. [문의 : 광주일곡도서관 ☎ 062-510-1631]

전국학교도서관 담당교사 모임, 2006년 신규임용사서교사들을 위한 연수 개최

전국학교도서관 담당교사 모임은 2월 18일(토) 평촌고등학교에서 ‘2006년 신규임용사서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 신규 사서교사(초·중등) 및 연수를 원하는 신규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덕주 사서교사와 이성희 교사의 “학교도서관 운영 사례”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또한 질의응답, 분임토의, 선배교사와의 만남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문의 : <http://cafe.daum.net/libte>]

제2회 ‘새내기 선배를 위한 도서동아리 캠프’ 개최



청소년문화예술센터와 학교도서관네트워크, 중·고등학교 도서동아리연합은 1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서울 경신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새내기 선배를 위한 도서동아리 캠프’를 열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도서동아리캠프는 서울 송곡여고, 경기기공, 공진중, 미래산과고 등 13개 중·고등학교 도서동아리 학생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교양강의를 듣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이번 캠프는 학우들에게 인기 있는 도서관 만들기 강의와 운영이 잘되는 도서관 기행을 떠나는 1박 2일 캠프로 진행되었다.

1강이 열린 10일(목)에는 이덕주 사서교사의 강

연이, 2강이 열린 21일(토)과 22일(일) 양일간에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이야기 한마당이 펼쳐졌다. [문의 : 박홍식, ☎ 011-9866-9023]

서강대 · 책따세, 전국 독서지도교사 연수회 개최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관장 신숙원)과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대표 허병두, 이하 책따세)은 공동으로 2월 1일(수)부터 4일(토)까지 서울과 지방의 중·고등학교 현직 독서지도교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전국 독서지도교사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서강대 로올라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연수는 대학도서관으로서는 처음 시도되는 독서지도교사 연수회로 매일 4시간씩 총 16시간에 걸쳐 이어졌으며 독서교육의 방향과 실제, 교실과 학교도서관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서강대와 책따세는 앞으로 독서지도 교사와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독서교육을 위한 공동노력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문의 : www.readread.or.kr]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아카데미 사서과정 개최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저작권아카데미 사서과정’이 3월 14일(화)부터 3월 17일(금)까지 4일간 열린다. 이번 과정에서는 도서관에서의 창작자의 권리 및 공공의 이익 사이의 문제, 다양한 이용형태에 따른 권리처리 방안 등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해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문의 : 송희승 주임, ☎ 02-2669-9993, hehe54@copyright.or.kr, http://www.copyright.or.kr]

- 기간 : 2006. 3. 14(화) ~ 17(금), 4일간
- 시간 : 9:30 ~ 17:30 (1일 7시간, 총 28시간)
- 장소 : 저작권아카데미 대강의실 (강서구 화곡동 소재)
- 교육대상 및 인원 : 각급 도서관 사서직 등 40명 내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도서관문화 목요일포럼’ 개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상임대표 도정일)은 1월 19일(목)을 시작으로 3월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국민운동 대강의실에서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도서관문화 목요일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기적의도서관이 정보, 교육, 문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센터로서 수행해야 할 기능, 어린이도서관의 공간구성과 개선점, 어린이문화 체험활동의 형태와 내용 등에 대해 다룬다. 기적의도서관 건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관계자,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해온 전문가, 어린이문화운동 또는 도서관운동을 전개해온 인사들이 강연자로 참석한다.

이 포럼은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어린이도서관 운영자,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담당자 등에게 무료 개방된다.

[문의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 02-3675-8783]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봉화지식정보센터 개관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대표 김성재)는 1월 24일(화) 육군 55사단에서 봉화지식정보포털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 도서관에서는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진행하는 '책과 문화가 있는 병영' 시범사업이 전개된다. '책과 문화가 있는 병영'은 사회에 있을 때에 비해 문화적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장병들을 위해 펼쳐지는 문화활동으로 체계적인 독서 활동 지원과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는 '취침전 30분 책읽기 운동', '독서수첩 사용' 등의 독서운동과 '찾아가는 체험 문화 투어', 등의 문화운동, '외국어 학습', '리더십 개발 학습' 등 군장병들을 위한 자기개발 학습 시스템 지원이 진행된다. [문의 : 이동근 ☎ 02-465-5417, 전송 02-465-5418]

태백문화연구소 · 한국사립문고협회, 터키 한국도서관 도서기증사업 추진

태백문화연구소(소장 최연진)는 한국사립문고협회(사무총장 신동석)와 함께 터키 이스탄불 탁심지역 한국문화원 내에 한국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를 기증기로 했다.

이번 도서기증사업은 최연진 태백문화연구소장이 터키 한국문화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터키교민

들과 6·25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도서가 전혀 없어 2세 교육에 어려움이 많다는 제안을 하게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인도에 기증할 도서를 모으고 있던 한국사립문고협회가 이와 뜻을 같이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들은 터키대사관, 문화관광부 터키-한국문화교류협회(회장 박용덕),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등과 접촉하며 각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도서확보에 들어가 4월 중 터키에서 기증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문의 : 태백문화연구소 ☎ 033-581-6444, 한국사립문고협회 ☎ 031-401-6458]

우림건설, 지속적인 '책나눔 행사' 펼쳐

우림건설은 한달에 한번씩 4천여권의 책을 포장해 각지에 기증하는 '책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 행사는 1996년부터 우림건설 심영섭 대표의 책 선물로 시작해 2003년부터 정례화되어 2006년 현재에는 한달에 약5천여권의 책을 나누는 행사로 발전하였다.

도서 선정은 심대표와 사내 도서위원회에서 선정하며 모든 추천 도서에는 심대표가 구식 편지지에 손으로 쓴 독서편지가 붙는다. 독서편지에는 책을 추천하는 이유나 순수한 독후감 직원들에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 행사를 위해 우림건설은 약5천여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900여 책은 우림건설 직원 등이 읽고 나머지 4천여 책은 30~50여 책씩 나누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복지단체나 기타 학교, 군부대 등에 보내진다.

건설교통부, 300세대 이상 단지 '문고' 설치 의무화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300세대를 넘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문고를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을 골

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을 공포, 1월 9일(월)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종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 설치했던 문고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강화했다. 이밖에도 '주민공동시설'에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등을 추가했다. [출처 : <http://www.moleg.yo.kr>]

〈신·구조문대비〉

■ 현행

제55조5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제55조5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2006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회장 이용남)는 1월 13일(금) 종로 한일관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정기총회에서는 2004년과 2005년 총결산보고 및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차기회장 선출 등이 있었다.

차기 임원진은 아래와 같다.

■ 차기 협의회장 및 감사

- 회장 : 최은주(경기대 교수)
- 감사 : 조인숙(한성대 교수)

*** 국외소식 ***

북한 김책공업대학, 전자도서관 준공식 개최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체육관이 1월 24일(화) 준공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전자도서관은 연건평 1만6천여㎡ 규모로 도서 목록 검색, 도서 및 자료 열람 등이 컴퓨터에 의해 진행되는 현대적인 도서관이라고 중앙방송은 소개했다.

북한 인민대학습당, 과학자 재교육 강화

북한 최대의 도서관이자 교육시설인 인민대학습당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 판이 1월 24일(화)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평양탐방' 기사에서 하루에 약 1만명의 사람들이 찾는 인민대학습당에서는 도서열람·대출은 물론 재교육강습, 강의, 문답, 토론회, 음악감상 등 여러 형태의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에서 선발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과학기술강습'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각 경제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 문제와 물리·화학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의 이론이 다뤄진다.

이와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강의'에서는 대학에서 취급하지 않은 새로운 과학기술 문제와 첨단기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2005년 미국 도서관계 10대 뉴스

〈American Libraries〉 2005년 12월에 “2005년 미국 도서관계 10대 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도서관계도 많은 변화와 위기 또는 기회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감소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애국자법, e-rate 유지문제, 동성애나 성적묘사의 책 소장 문제,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분리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출처 : The Top 10 Library Stories of 2005, American Libraries, 36(11), 2005, 28-32.]

- 1) 도서관을 덮친 허리케인
- 2) 구글의 바람
- 3) 예산 부족을 고민하는 공공도서관
- 4) 애국자법 연장 문제
- 5) 비판 받는 E-Rate
- 6)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 부족
- 7) 동성애나 성적 묘사를 포함한 책 소장에 대한 비판 강화
- 8) 도서관학과 정보학은 분리해야 할 것인가
- 9) 잇따르는 도난 사건
- 10) 스토리코프스의 부활

미국연구도서관협회, 미국 내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발표

미국연구도서관협회(ARL)는 2005년 12월 미국 내의 도서관에서 액세스 서비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1995년 이후의 변화된 환경을 조사한 것으로 대표적 변화로는 1991년에는 “대출(Circulation)”이라고 부르던 도서관 자원 제공 업무를 서비스의 다양화와 함께 “액세스 서비스(Access Services)”라고 부르게 된 도서관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대출·액세스 서비스의 핵심은 1991년에

는 대출, 서고 관리와 배가, 선전·홍보(billing), 입·퇴관 관리, 예약 등으로 나누어졌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5년 이후에는 신착 잡지, 마이크로 자료, 인포메이션데스크, 상호대차 등 다른 부문에 속하고 있던 기능들이 대출·액세스 서비스 부문에 흡수된 도서관이 많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캠퍼스 내의 문서전달(delivery), 노트북 대출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도서관이 2~3배 증가하였으며 이외에도 서비스 포인트의 정리·통합, 홍보, 제본, 상호대차의 접수·관리 업무에서 자동화 현상 등이 증가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직원에 대해서는 지원업무 담당 직원이 줄어들고 학생 보조인력이 증가했다는 점, 기계화와 함께 업무의 복잡화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서관이 대출 수 등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특히 LibQUAL을 이용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7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출처 : <http://www.arl.org/pubscat/pr/2005/announcespec290.html>]

미국 맥컬리 공공도서관, 한국이야기 마당 개최

한국어 도서코너가 있는 미국 맥컬리 공립도서관이 2월 11일(토)에 라디오 서울의 김인배 전문 성우와 김진희, 오지혜 성우를 초청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이야기마당을 개최하였다.

공립도서관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한국어이야기 마당은 한인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를 목표로 한 것이다.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공공도서관, 노숙자의 이용을 둘러싼 논란 불거져

미국 텍사스주의 달라스 공공도서관은 새로 시행되는 이용 규칙에 '수상해 보이는 이용자의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이 규정은 노숙자에 대한 차별 조항으로 신문을 살 돈이 없는 노숙자라도 도서관에서는 필요한 구인 광고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서관측은 이 규정은 체취 뿐만이 아니라 향수에도 적용되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도서관은 미국 각지에 있는데, 미국도서관협회(ALA) 차기 회장 레슬리 버거(Leslie Burger)도 1992년의 판례대로 기본적인 위생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도서관은 퇴거시킬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 <http://www.ala.org/ala/online/currentnews/newsarchive/2005abc/december2005ab/dallasplan.html>]

EU신규 가맹국, 국립도서관 연구개발 체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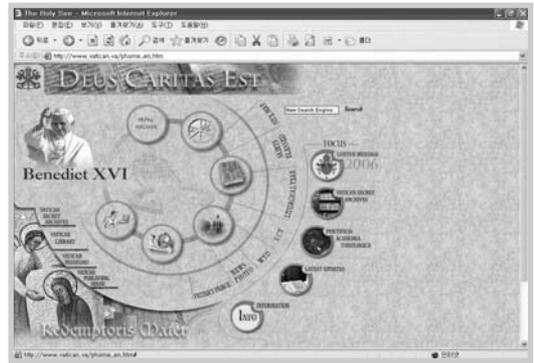
2004년 EU에 가맹한 10국(체코,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이 유럽도서관(TEL)의 전면적인 파트너(Full Participants)가 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TEL-ME-MOR)에서 보고서를 간행했다.

이 조사는 10개국의 국립도서관을 대상으로 문화·과학 자원의 보존과 액세스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연구개발 활동에의 임하는 체제는 도서관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자료의 디지털화가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은 10관 중 4관에 불과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디지털화에 대한 지식·비용·디지털 자료의 관리 노하우 등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http://www.telmemor.net/news.php>]

바티칸 교황청 비밀문서고, 온라인 개방



교황청 비밀문서고가 교황청의 인터넷 사이트(www.vatican.va)를 통해 공개되었다.

교황청 사이트에 접속해 독어, 영어, 스페인어, 불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중 하나의 언어를 선택해 클릭하면, 좌측 하단에 교황청 도서관, 박물관, 인쇄소 외 비밀문서고로 접속할 수 있다.

네티즌은 이 사이트를 통해 비밀문서고 안에 소장돼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재판 과정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국가 등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국의 역사적 자료들보다 오히려 더 오래된 자료들까지도 볼 수 있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도서관의 변혁-과제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1월 26일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도서관의 변혁 -과제와 전망-’을 주

제로 국립국회도서관(NDL) 도쿄 본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영국국가도서관의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 국립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사업,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 포털에 대한 사업보고가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좌담식 공개 토론에서는 각 패널리스트들이 미래 도서관의 과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출처 : <http://www.ndl.go.jp/jp/sym/index.html>]

중국 상하이도서관, 영화 관련 자료 디지털화



중국 상하이도서관은 중국의 1921년부터 1949년까지의 중국 영화 자료를 수집해 디지털화한 웹페이지 “상하이 영화”의 콘텐츠 일부(영화의 기억)를 부분 공개했다.

중국에서 1949년 이전에 촬영된 영화는 3000편 이상이지만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100편에 못 미친다. 이에 상하이도서관은 1949년 이전의 중국의 영화잡지를 디지털화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영화의 기억’은 연구자전용과 일반용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연구자전용은 잡지의 해제, 목차, 본문, 일부 페이지의 디지털 화상을, 일반용은 각 영화의 감독·주연배우 등에 대한 약력과 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각 콘텐츠

는 서로 링크되어 있으며 일부의 영화에 대해서는 음성이나 영상도 볼 수가 있다. [홈페이지 : <http://memoire.digilib.sh.cn/SHNH/>]

홍콩 공공도서관, 도서 파손 심각

홍콩 공공도서관의 도서유실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오락레저사무국의 조사에 따르면 도서관 대출기간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거나 유실, 혹은 도서를 손상시키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2005년 현재 홍콩 72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약 1만6천 건의 도서유실 및 손상문제가 처리되었으며 총 벌금 및 손해배상금은 10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도서관조례>에 따르면 일반시민은 공공도서관에서 잡지, 신문,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최고 14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을 초과할 경우 매일 1.5달러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이동서적의 경우 50센트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용자가 도서를 유실하거나 손상했을 경우 해당 자료의 법정 기준액(일반 판매액)에 부과세 20%를 더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오락레저사무국은 도서의 유실 및 손상을 막는 방법으로 현행 법규에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법으로 개정하는 것과 각 도서관 및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도서관 자료의 보관 및 대출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고려하고 있다.

*** 신설 도서관 ***

노원정보도서관



- 개관일자 : 2006년 2월 15일(수)
- 면 적 : 연면적 6,526㎡
- 관 장 : 박은자
- 주 소 : (139-210) 서울 노원구 상계 10동 686번지
- 전 화 : 02-950-0050
- 팩 스 : 02-950-0059
- 홈페이지 : www.nowonlib.seoul.kr
- 특 징 :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 5만 여권의 도서 및 8천 7백 여점의 비도서 자료 구비. 무인대출반납 시스템, 좌석안내 키오스크, 모바일 회원증, 휴대 폰문자서비스 등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 휴관일은 매월 1, 3째 월요일과 법정공휴일.

서귀포시서부도서관



- 개관일자 : 2006년 2월 2일(수)
- 면 적 : 대지면적 2,390평, 건물면적 356.05평
- 관 장 : 김창휘
- 주 소 : (697-120)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1921-1 3층
- 전 화 : (064)739-3862-3
- 팩 스 : (064)735-3395
- 특 징 : 중문동 국민체육센터 내 3층, 도서 5000여 권, 종합자료실, 디지털정보이용실 및 어린이열람실, 세미나실 정기 간행물 코너 등을 갖춘. 휴관일은 법정공휴일과 매주 월요일.